

『아리랑』에 나타난 작가 의식

The Consciousness of The Writer Presented in 『Arilang』

서허왕(서영여고)

Seo, Huh Wang

주민번호 : 670628 - 1481010

국문 초록

『아리랑』의 시간적 배경은 동학농민운동 이후부터 8·15해방까지이다. 공간적 배경은 김제와 군산을 중심으로 만주, 목포, 연해주, 하와이, 일본열도, 동남아시아로 확산된다.

본고는 심리주의 관점에 있는 자크 라캉의 ‘욕망의 구조’를 통해 분석한다. 타자를 통해 발생한 구멍은 남근을 추구하며 구멍 메우기를 실천한다. 하지만 메워진 구멍은 또 다른 구멍을 발생하고 또 다른 형태의 남근을 추구하며 미끄러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작가의식을 찾을 수 있다.

『아리랑』은 독립운동가, 소자작농, 수탈당한 여성, 하와이 이주민, 친일파 등이 타자화로 인해 구멍이 생긴다. 따라서 이들은 각기 남근을 추구한다. 이들은 구멍 메우기를 실천하여 극복한다. 하지만 메워진 구멍은 또 다른 구멍을 발생하고 또 다른 형태의 남근을 추구한다.

욕망의 구조로 살펴본 결과 『아리랑』의 주체를 통해 제시한 작가 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운동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발생하지만 점차 다양한 이데올로기 관점을 지닌 독립운동가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다양한 이데올로기 관점을 통합되지 않은 채 외세에 의해 독립이 이뤄진다. 이를 계기로 민족간 갈등은 심화되고 결국 분단을 맞게 된다.

둘째, 소자작농의 소극적 대응이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랑민의 삶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셋째, 수탈당한 여성은 소극적 여성과 적극적 여성으로 나눠 작가의식이 나타난다. 소극적 여성은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다. 적극적 여성은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며 시련을 극복한다. 따라서 작가는 수탈당한 여성의 소극적 삶보다 적극적 삶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넷째, 하와이 이민자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을 간다. 이민자는 하와이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애국지사의 활동 때문에 독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한다. 작가는 이민자의 시련 극복 의지와 민족의식이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친일파는 신분에 대한 열등 때문에 부와 권력을 추구한다. 그래서 친일을 한다. 하지만 일체에 이용만 당하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제시한다.

앞으로 연구과제는 『아리랑』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기초로 『태백산맥』, 『한강』까지 확대하여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작가의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핵심어 : 아리랑, 라깡, 남근, 구멍, 구멍 메우기, 또 다른 남근, 크로노토프, 독립운동가, 소자작농, 수탈당한 여성, 하와이 이민자, 친일파, 한일합방, 토지조사사업, 남성부재, 권력,



I. 서론

일제는 조선을 근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식민화한다. 일제는 정복자로서 식민지 조선을 철저하게 억압하고 탄압한다. 일제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꿈꾸는 조선인을 포섭하여 민족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식민화를 확대해 간다. 조선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6년간 일제 식민지로 치욕을 당한다. 이 시기의 민족적 삶과 애환을 형상화한 작품이 조정래 『아리랑』¹⁾이다.

『아리랑』은 ‘생활’ 중심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 민중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채워진 ‘산 역사’의 담론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의 역사를 소설로 형상화하여 일제에 대한 투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수난의 생생한 체험에서 비롯된 항일 의지를 한데 모으는 정신적 지표까지 밝힘으로써 민족사의 바른 줄기를 세워가고자 한 작품이다.

『아리랑』의 주제는 크게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친일파)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로 나타낸 ‘경쟁의식’으로 제시한다.(정호웅, 2003) 여성을 수동적 삶의 여성, 능동적 삶의 여성, 민족의식이 결여된 설 배운 신여성으로 분류했지만(박혜숙, 2003) 이 분류는 일관된 기준 적용이 아니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친일

1) 『아리랑』은 1990년 12월 11일 《한국일보》에 연재를 시작으로 4년 8개월의 집필 기간을 거친 끝에 2만 장의 분량으로 탈고되어 4부 12권의 대하소설로 간행되었다. 제1부는 <아, 한반도>(37장), 제2부는 <민족혼>(35장), 제3부는 <어둠의 산하>(48장), 제4부는 <동트는 광야>(5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동학군 쫓기 직후에서 한일합방을 거쳐 토지조사령이 발표되기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일진회, 동학, 의병, 제1차 한일 협약, 한일합방, 하와이 이민, 스티븐 암살 등의 역사적 사건이 나타난다. 제2부는 토지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12년경부터 경신참변이 있었던 1920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전국토지조사 실시, 역둔토 특별처분령, 장인환 사건,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 창설, 3·1운동, 만주 독립투쟁과 공산주의 바람 등이 역사적 사건이 펼쳐진다. 제3부는 대략 1920년부터 만주사변이 있었던 1931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관동대지진,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 조공 붕괴, <아리랑>영화상영, 신간회 창립, 만주 독립운동 등의 역사적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룬다. 제4부는 1930년대 초부터 해방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일본군의 조선독립군 대토벌 작전, 일장기 말소 사건, 선만척식회사 창립, 코민테른 7차 대회, 조선족 중앙아시아 이주령, 진주만 폭격, 강제 징용과 정신대 등의 역사적 사건이 나타난다.

과 형성 동기는 열광, 인종(忍從), 사육 책기기의 세 가지²⁾이고 (임현영, 2003.), 기본 구조 및 구성은 각종 사건을 시간대별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대기를 기본골격(조남현, 2003)으로 취하고 있다.

『아리랑』의 시공간은 광범한 시간과 공간에서 여러 사건과 인물들을 시간적 추이에 따라 번갈아 살피는 나선형적 진행으로 공시성과 통시성이 결합되며(황광수, 2003), 서사 공간은 군산을 중심으로 만주와 시베리아의 축과 하와이와 미국의 축으로 확산 된다지만(권영민, 2003) 이는 평면적 제시이기 때문에 입체적 축으로 확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서사구조는 /노동/, /지식/, /소유/, /권력/의 의미소를 바탕으로 농민과 지식인이 연대하여 /소유/와 /권력/의 속성을 획득하려는 방향으로 투쟁하며(장수익, 2003) 땅을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는 자의 대립·충돌을 이야기 구성과 사건 전개의 기본 축(김창식, 2003)으로 삼고 있다.

또한 『아리랑』은 가족의 수난사와 수난의 민족사를 제시하고 여러 이념 즉 민족주의, 아나키스트, 승려, 사회주의, 보황주의, 기독교 사회주의 등을 통해 극복하려 했음을 제시하며(조남현, 2003), 작품 속의 노래 아리랑을 다양한 기능별³⁾로 분류한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작품 연구는 민족주의 관점에 의한 이원적 대립 구조를 기초로 이뤄졌기 때문에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2) 열성파는 이념적으로 비민주주의적 성향으로 군국주의에 뇌동하거나 봉건제 사회의 신분적인 천대로부터의 일탈 수단으로 외세를 등에 업는 행식을 취한다. 인종(忍從)의 반민족 행위는 중산층과 소지식인, 종교인 등등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상인데, 『아리랑』에서는 일본 유학생 중에서 그 유형을 찾을 수 있다. 사육 책기기는 부르주아 계급에 그 유형이 풍성하게 나타난다. (임현영, 『『아리랑』의 민족운동사적 접근』, 『아리랑 연구』, 해냄, 2003.)

3) 『아리랑』에 나타난 노래 아리랑은 일제 침략에 대한 항쟁가로, 사회주의 노동 운동의 쟁의가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을 위한 진혼곡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망향가로, 소박한 시골의 정서를 담은 전원의 노래로, 자신의 질박한 느낌을 표출하는 서정가요로, 심지어는 색정을 유발하는 선정가요로 두루 불렸다. (전영택, 『아리랑 노래로 읽어보는 『아리랑』』, 『아리랑 연구』, 해냄, 2003.)

다양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민족 운동의 다양한 문화와 성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아리랑』연구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억압과 저항 그리고 협력이 이뤄진 입체적 크로노토프⁴⁾를 제시하며 자끄 라캉의 심리주의 관점으로 독립운동가, 소자작농, 수탈당한 여성, 하와이 이민자, 친일파 등의 각기 다른 남근(男根)⁵⁾의 의미를 제시한다. 그리고 당대의 미시적 사건과 거시적 사건⁶⁾이 접합되는 위치의 서사담론을 통해 작가 조정래의 작가의식을 살피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소설은 허구적 이야기 세계를 실제 현실 세계처럼 만들기 위해 담론 차원에서의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로 이야기

4) 크로노토프(chronotope)는 러시아 문예비평가 미하일 바흐친이 '시간'과 '공간'은 분리하여 논할 수 없이 상호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바흐친은 문학에서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이 공간과 본질적이며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소설의 발전과정을 통해 규명하면서, 어차피 인간은 시간 속에서만 공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시간과 공간은 동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호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입체적 크로노토프의 의미는 한일합방부터 8·15광복까지의 시간과 김제, 군산, 만주, 목포, 연해주, 상해, 일본, 하와이, 남양군도, 버마 등의 공간 속에서 조선인은 억압과 저항 그리고 협력 등이 상호 작용하여 혼합된 시공간을 말한다.

5) 남근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으로 회귀를 주장하는 라캉이 프로이트가 주장한 외디프스 콤플렉스에서 남근의 의미를 재해석한 것으로 페니스라 불리는 생물학적 개념의 성기가 아니라 아이의 무의식 속에 있는 상징이다. 즉 남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표지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남근은 주체가 타자됨으로 결여된 가치에 대한 욕망의 의미로 사용한다.

6) 거시적 사건은 국가적, 사회적인 큰 사건을 의미하며 미시적 사건은 거시적 사건에서 개개인이 겪는 작은 사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한일합방, 3.1운동 등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건으로 이를 거시적 사건이라면 거시적 사건 속에 개개인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반응하는데 이를 미시적 사건이라 한다.

세계가 화자의 의식의 편린들이 아닌 독립된 세계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서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로 이야기 세계가 허구적 세계가 아닌 실제 현실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 생생한 극적 환영을 조성하는 수사학을 구사해야 한다.(나병철, 2006)

소설의 중요한 내용적 특징은 인간의 삶을 빈번히 복합적으로 계열화된 사건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아리랑』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독립운동가, 소자작농, 수탈당한 여성, 하와이 이민자, 친일파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계열화된다. 다양하게 계열화한 사건들의 의미는 어느 한 인물의 위치에서 나타나지 않고 각 인물들의 관점이 충돌하면서 ‘해체’되는 과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라깡의 욕망의 구조⁷⁾로 고찰할 수 있다.

라깡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재해석⁸⁾하며 외디프스 콤플렉스를 새롭게 해석하여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는 욕망의 구조를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라깡의 ‘욕망의 구조’를 바탕으로 『아리랑』의 크로노토프를 제시한 후 조정래의 작가 의식을 살펴보겠다.

『아리랑』의 등장인물은 역할에 따라 크게 독립운동가⁹⁾, 소자

7) 주체는 대상에게 욕망을 느낀다. 그것이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만 얻으면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 대상을 얻어도 욕망은 여전히 남는다.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다. (자크 라깡. 권영택 엮음, 『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3, p.19.)

8)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되어 있다」라는 말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의식은 은유와 환유로 구조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라깡이 시도한 프로이트의 재해석이다. 즉 무의식과 똑같은 원리에 의해 욕망 역시 표층으로 올라온다.

9) 독립 운동가는 일제 강점기에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이다. 『아리랑』에는 실존 인물과 창조적 인물이 제시된다. 실존인물은 의병활동에 활약했던 최익현, 임병찬, 신돌석 등과 독립 운동에 활약했던 김구, 나철, 이현상, 여운영, 김좌진, 홍범도, 이동희, 이회영, 김일성 등이 제시된다. 허구적 인물은 송수익(가명:김동수)을 비롯해 지삼출, 천수동, 정도규, 신세호,, 공허 스님, 방대근, 윤주협, 조강섭, 이광민, 유승현, 윤철훈, 고서완 등이 있다. 이들 중 민족주의 계열로 최익현, 임병찬, 김구, 여운영, 김좌진, 공허스님, 방대근, 송수익, 송가원 등이며 이 중에 송수익(가명:김동수)은 민족주의에서 대중교, 아나키스트 등으로 변신하는 입체적 인물이다. 아나키스트는 이회영, 신채호, 송수익 등이고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계열은 조강섭, 윤철훈, 차은심, 김일성, 허탁, 정도규, 이현상, 고서완 등이며 보황주의 계열은 신세호,, 임병서 등이다. 대중교도

작농¹⁰⁾, 수탈당한 여성¹¹⁾, 하와이 이민자¹²⁾, 친일파¹³⁾의 다섯 주체로 분류한다. 주체를 더욱 세분화하고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인물분류를 세분화 다양화 할 경우 본고에서 연구하려는 조정래 작가의식에 대한 큰 줄기를 놓치고 지엽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리랑의 인물을 다섯 주체로 분류하여 연구하겠다.

주체는 대상을 남근¹⁴⁾으로 믿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 욕

인은 한법린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독립 운동가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10) 소자작농은 소규모 농지를 소유하거나 소작을 부치며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땅을 빼앗기거나 소작권을 빼앗긴 농민을 지칭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박병진, 김춘배, 박건식, 남상명, 한기팔, 강산, 하봉두, 김용철, 차득보, 남만석, 김진배, 오영감 등이다.

11) 수탈당한 여성은 대부분 가난으로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 많다. 이들은 크게 소극적 여성과 적극적 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여성은 현실에 대응하기보다 순응하는 존재들로 감골택, 방보름, 무주댁, 오월이, 금산댁, 하엽, 월엽 등이다. 적극적 여성은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대응하는 존재로 수국, 옥비, 필녀, 최현옥, 차은심, 윤선숙 등이다.

12) 하와이 이민자는 1902년 12월 22일 최초로 121명으로 구성된 이민단이 인천을 떠났다. 『아리랑』에서는 1904년 여름에 방대근이 떠난다. 하와이 이민 1세대는 방대근, 남용석, 주만상, 박영순, 김칠성, 구상배 등이고 2세대는 토마스, 존 등이 있다.

13) 친일파는 일본인의 권익과 조선인 수탈에 앞장서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인물로 백종두, 백남일, 장덕풍, 장칠문, 방태수, 이동만, 이경재, 김참봉, 양치성, 나기조 등이 해당된다.

14) 심리학에 기원을 두고 있는 사건들은 남근이 갖는 의미화 기능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아이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남근을 소유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클라인의 주장은 남근의 기능을 고려할 때 더욱 정확히 기술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는 성장함에 따라 요구와 욕망의 변증법을 경험하게 된다.

사랑에의 요구는 욕망의 기표가 가져오는 고통으로 고통을 겪을 뿐이다. 어머니가 욕망하는 것이 남근이라면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 남근이 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욕망에 내재하는 분열이 이미 타자의 욕망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체는 실제적으로 남근에 대응할 만한 어떤 것을 타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에의 요구가 관련되는 한 주체가 실제로 남근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에의 요구는 주체가 남근이 되어야 한다고 요

망은 끊임없이 충족하지 못한 결핍으로 나타난다. 이 결핍은 실재계에 나타나는 틈새요, 구멍¹⁵⁾이다. 그러므로 주체는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가 나타난다. 이런 행위가 틈새 메우기요 구멍 메우기이다. 이런 구멍 메우기는 또 다른 구멍을 통해 남근이 생산되면서 미끄러진다.¹⁶⁾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작가의식이 나타난다.

한일합방은 독립 운동가에게 주권회복을 열망하게 하는 구멍이다. 독립운동가는 '독립'을 남근으로 다양한 구멍 메우기를 실천한다. 초기 구멍 메우기는 조국 상실에 따른 분노로 자연발생적 민족주의적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이다. 하지만 만주로 이동한 독립운동은 교육과 사상 등의 체계적이지만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으로 갈등이 발생하며 또 다른 남근을 추구한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농지상실은 소자작농의 구멍이다. 소자작농은 '농지'를 남근으로 추구하며 농지를 되찾기 위한 구멍 메우기를 실천한다. 이들의 농지를 되찾기 위한 구멍 메우

구하기 때문이다.

임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타자의 욕망이 주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타자의 욕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주체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실제로 남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남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 없이는 공포증과 같은 징후나 페니스 선망과 같은 구조적 결과들이 아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세공포와 관련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거세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남근을 나타내는 기표는 욕망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고 욕망은 거세공포나 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과 결합한다. (자크 라캉, 앞의 책, p.269.)

15) 구멍은 없어진 기표가 투사될 수 있는 자리로서 작용하고 이것이 타자의 구조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기표가 없어지면 타자가 질문에 반응할 수 없게 된다. 구멍에 남근의 기표가 자리 잡음과 동시에 자리 잡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근의 기표는 오로지 타자의 차원에서만 표출되기 때문이다. (라캉, 앞의 책, p.168.) 남근 중심적 상징계에서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초월적 기표(남근)에 '예속됨'을 뜻하며 상징계의 핵심적인 기표의 상실이 구멍이다. (나병철, 『소설과 서사문화』, 소명출판, 2006, p.64.) 따라서 본고는 주체에서 타자화로 발생한 남근 결여 상태를 '구멍'으로 여긴다.

16) '구멍'은 존재와 부재의 변증법이다. 결여에서 욕망은 추구한다. 충족된 욕망은 또 다른 결여를 발생시켜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면서 재생산한다.

기는 소규모·비조직적·비체계적·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활동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규모적·체계적·조직적인 일체에 의해 좌절된다. 이후 고향을 등지고 유랑하는 처지가 되면서 구멍을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또 다른 남근은 나타나지 않는다.

수탈당한 여성은 '정조'를 남근으로 여기는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부재'로 순결을 잃는다. 따라서 남성부재는 여성의 구멍이다. 수탈당한 여성은 크게 적극적 여성과 소극적 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형태로 구멍 메우기를 한다. 소극적 여성은 남성의 폭력에 대해 비조직적·비체계적 저항을 하다가 '남성부재'의 구멍을 끝내 메우지 못하고 좌절한다. 소극적 여성에게는 소자작농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존의 남근을 보충 대리하는 또 다른 남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적극적 여성은 남성중심사회의 '남성부재'를 극복하고 독립단체에 가입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하면서 '독립'이란 또 다른 남근을 추구하게 된다.

하와이 이민자는 동학농민운동 실패, 일제의 농지 수탈, 조선 관리의 부정부패, 흉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구멍이다. '경제'를 남근으로 추구하는 이들은 경제적 궁핍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국 하와이 이민을 선택한다. 하와이 이민자는 루나에게 동물보다 못한 육체적 학대를 비롯해 언어폭력과 낮은 보수, 고된 노동으로 구멍 메우기가 좌절을 하는 듯하지만 근면, 성실한 노동으로 극복한다. 이처럼 구멍을 메우기에 성공하지만 독립운동을 실천하는 애국지사의 행위를 보고 또 다른 남근인 '독립'을 추구한다.

친일파는 사농공상의 신분질서가 확고한 사회에서 자신들을 천하게 여기는 신분사회를 구멍으로 여긴다. 따라서 신분상승을 위한 '권력'을 남근으로 추구하며 구멍을 메우기 위해 일인과 거리감을 좁히며 친일파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일인과 조선인 사이의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절실히 인식하게 된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남근이 아닌, 일인들에게 무조건 충성할 때만이 얻어지는 지위와 이익이라는

또 다른 남근을 추구한다.

이처럼 독립운동가, 소자작농, 수탈당한 여성, 하와이 이민자, 친일파들의 남근은 다양한 구멍 메우기로 이루어지지만 또 다른 남근이 나타나며 작가의식이 반영된다.

Ⅲ. 『아리랑』에 제시된 시공간성

『아리랑』의 시간적 배경은 동학농민운동 후부터 해방까지이고 공간적 배경은 군산을 중심으로 만주, 목포, 연해주, 하와이, 일본열도, 동남아시아로 확산된다.¹⁷⁾

일제가 조선을 병탄했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자국의 식량조달이다. 일제 강점과 동시에 조선 최대 곡창지역인 김제는 일제의 수탈 현장이 전락한다. 수탈된 곡식은 가까운 물류유통도시 군산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다. 군산은 농지를 잃은 농민이나, 피폐한 삶을 하는 민중이 일자리를 찾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보여준 공간이다. 그러므로 군산은 왕성한 상업 활동이 진행되는 근대도시이자 수탈의 공간이 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김제와 군산은 『아리랑』의 핵심공간이다.

목포는 군산과 마찬가지로이다. 소자작농인 박건식과 남상명이 고향을 등지고 이주한 공간이 목포다. 이들이 빼앗긴 농지를 찾기 못하고 찾아간 곳인 목포는 군산과 같이 부두 야적장에 일본으로 실어갈 수탈된 물건이 쌓여 있다. 이처럼 군산과 목포는 상업화와 근대화를 이룬 공간이지만 수탈의 현장이자 고통의 공간이다.

독립운동가에게 만주는 독립 투쟁의 공간이다. 즉 대중교, 민족주의, 아나키스트, 공산주의, 보황주의 등을 신봉하는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전개한다. 하지만 선만척 식주식회사에 의해 이주한 소자작농에게 만주는 고향을 잃고 유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장소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에게 또

17) 권영민 교수가 제시한 만주 시베리아 축과 하와이 미국 축을 확대한 것이다.

다른 수탈을 당하기도 한다. 즉 만주는 독립운동과 수탈이 공존하는 이중적 공간이다.

연해주에서는 윤철훈, 윤선숙, 조강섭 등의 소련 사회주의 빨치산이 항일 투쟁에 활약한다. 이곳은 독립군에게 신식무기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정책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조선족의 또 다른 수탈 공간이다. 타슈켄트로 강제 이주한 윤선숙을 통해 조선족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지닌 민족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만주, 연해주는 독립 운동가가 범이데올로기적 항일 투쟁을 전개한 공간임과 동시에 고향상실의 유랑민이 겪는 고난의 현장이다.

하와이는 가난한 민중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민한 공간으로 방영근, 남용석, 주만상 등의 미주 이민 1세대가 겪는 고난의 현장이다. 초기 하와이 이민자는 조선에서 대부분은 팔려가거나 속임을 당해 건너간다. 또한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자는 적응을 하기도 전에 농장 감독에게 멸시, 모멸, 폭력 등의 시련을 당한다. 하지만 일본인, 중국인을 비롯한 다른 어떤 민족보다 근면, 성실하다는 인정을 받아 고난을 극복한다. 따라서 하와이는 조선 출신의 이민자가 육체적·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의 굳건한 입지도 확보하는 정신력이 강한 민족임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일본 열도는 조선에 새로운 문물을 제공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 공간이다.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 대학살, 강제 징용자들의 탄광이나 비행장 건설의 강제 노역 등의 공간은 일제의 잔혹성을 제시한다. 또한 버마를 비롯한 동남아 필리핀과 남양 군도는 강제로 끌려간 징용자 박용화와 정신대 복실이, 삼월이의 생활공간이다. 이들 공간은 전쟁의 참혹성과 일제의 잔혹성, 비인간적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설정된 공간이다.

『아리랑』은 다양한 사건과 많은 인물들이 동학 운동부터 8.15 광복까지, 군산, 김제를 출발하여 목포, 만주, 연해주, 하와이, 일본열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며 수탈과 억압, 저항과

협력의 시공간을 나타낸다. 『아리랑』의 크로노토프는 나선형 결합으로 공시성과 통시성을 나타낸다.

IV. 독립운동의 발전 양상과 다양성

독립운동가를 주체에서 타자로 전이시킨 한일합방은 독립운동가에게 주권 상실감을 주면서 주권 회복을 열망하게 하는 구멍이다. 독립운동가는 ‘독립’을 남근으로 추구하며 다양한 형태로 구멍 메우기를 실천한다.

초기의 구멍 메우기는 일제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자결과 민족주의 관점의 의병 활동을 표출하는 것이다. 자결은 의미 없는 극한 대응이지만 의병활동은 그렇지 않다. 의병활동은 최익현, 임병서, 송수익, 임병찬 등 유생들과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대부분이다. 의병은 민족의식이 높고 민중들은 이들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그러나 의병은 높은 민족의식과 민중의 호응에 비해 체계적, 조직적이지 못했으며 무기는 농기구나 죽창에 불과했다.

반면 의병이 대적할 일본군은 청일, 러일 전쟁 승리로 이끈 강적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의병은 일본군과 대적하여 패하여 많은 의병장, 의병이 죽고 체포된다. 그래서 의병이 와해된 듯했지만 의병장이었던 송수익은 살아남은 의병들의 대오를 정비하여 국권 상실 이후에도 일제에 대한 항쟁을 지속한다. 하지만 무기, 조직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송수익은 총상을 입고 공허, 지삼출, 필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다. 이후 의병을 해산하고 만주로 이동하여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만주에서는 다양한 독립운동가와 독립단체에 의해 활발히 항일 투쟁이 전개되고 있었다.¹⁸⁾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연해

18) 만주에서 독립운동 조직의 중심은 대중교이다. 송수익은 만주에서 동포들의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대중교 교인으로 변신한다. 이후 공산주의와의 대립을 벗어나기 위해 무정부주의자가 된다. 이런 변신의 의미는 이데올로기적 신념보다 국가의 주권회복이 중요함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조직적 체계적 독립운동의 필요성으로 독립군 양성 기관이 활성화된다. 신흥중학이 대표적으

주 빨치산 투쟁, 각 지역 소규모 항일 무장 투쟁, 항일연군투쟁, 의열단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일본에 많은 피해를 주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와 독립단체는 대종교, 아나키스트, 공산주의, 공화주의, 보황주의, 사회주의 등 각기 다른 사상을 서로 다른 남근으로 하여 갈등을 내포한다.¹⁹⁾ 만주의 독립운동

로 이 학교 출신 방대근은 동기생인 윤주협, 권혁도, 노병갑, 김시국과 더불어 보황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의열단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입한다.

만주에서 독립운동 조직의 중심은 대종교이지만 다양한 사상 존립으로 독립운동가는 내부적 갈등이 있다. 서간도에 있는 독립단체 13개 중 대표적 단체인 보황주의를 주창하는 대한독립단과 대종교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군정부가 상반된 의식으로 갈등을 한다. 북간도에 있는 17개 독립운동단체 중 대표적인 대종교 중심의 대한정의단과 기독교 중심 대한국민회이다. 이 두 단체는 종교적 차이는 있지만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점은 공통적이다.

연해주에서 이동해 온 홍범도 부대 대한독립군은 대한국민회가 연합하고, 1919년 8월 대한정의단은 김좌진을 비롯해서 군사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군정부로 개편했다. 그 뒤 상해 임시정부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 서간도의 군정부를 서로군정서로, 북간도의 대한정의단도 군정부 편제를 바꿔 북로군정서로 바꿔 상해임시정부에 편입한다. 기독교계의 대한국민회도 상해임시정부를 지지하며 통합 노력에 호응한다. 하지만 서간도의 대한독립단은 상해임시정부 지지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북벌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청산리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은 연해주로 이동하지만 일본과 협의한 러시아 적군에 의해 죽거나 무장해제를 당한다. 무장해제 당한 독립군 일부는 적군 5군단에 편입시킨다.

적군에 편입된 이광민은 윤철훈과 함께 소련 공산당원으로 연해주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며 항일 투쟁을 전개한다. 방대근은 윤주협, 이상태와 함께 의열단 활동을 하지만 조선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에 편입됨으로 의열단도 중국공산당에 편입된다.

19) 대종교와 공산주의, 보황주의와 공화주의 갈등 : “공산주의 풍조는 재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차단시켜야 합니다.” “글세요, 무조건 차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리 답을 치듯 용이한 일일까요? 그보다 먼저 청년들이 어찌해서 공산주의에 경도되고 있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략) “아닙니다. 청년들을 그리 경박하게 속단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강 알기로는 공산주의가 내건 두 가지 큰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가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들을 부자나 지주들의 속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이고, 둘째가 열강들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세계 약소민족들의 독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동포 청년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양수검장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찾고 가난도 면하게 된다는데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건

은 남근인 ‘독립’이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로 전이되며 서로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전개한다.

결국 주권 상실한 초기의 의병활동은 의분에 찬 민족주의적 자연발생적으로 비체계적으로 구멍 메우기에 실패하지만 만주로 옮겨진 독립운동은 다양한 사상으로 조직화, 체계화하여 구멍을 메우려 노력한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는 새로운 구멍인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열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남근을 추구하며 갈등한다. 이후 독립은 서로 다른 남근을 통합할 여유 없이 외세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사상적 갈등만 증폭된다. 이데올로기에 예속된 민족은 분단 현실을 맞는다. 이에 작가는 『아리랑』을 통해 외세에 의한 독립이 독립운동가의 다양한 이념을 통합 못한 상태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분단 현실이 초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V. 소자작농의 소극적 현실 대응

1908년 일본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조선에 세우면서 체계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해 대대로 농사짓던 농지를 국유지로 강제 편입시킨다. 소자작농은 이렇게 뺏긴 농지 상실의 구멍이다. 따라서 ‘농지’를 남근으로 추구하며 빼앗긴 농지를 찾기 위한 소자작농의 구멍 메우기를 실천한다.

소자작농 박병진, 김춘배 등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다 일체에 농지를 강제로 뺏기며 구멍이 생긴다. 소자작농은 단체로 토지조사국이 있는 면사무소에 가서 조사국 직원을 만나 구멍 메우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총칼을 앞세운 경찰에 의해 박병진과 김춘배는 투옥되고 하봉두, 김용철, 강센 등은 태형을 당해 성불구, 절음발이 등 불구가 될 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당연지사가 아닐까 합니다.” (중략) 대중교가 종교인 한 공산주의 세력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필연이 아닐까 싶었다. 물과 기름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본질적 숙명. 그건 복벽주의와 공화주의의 필연적 대립과 똑같은 성질의 것이었다. (『아리랑』 8권 146:18 ~ 149:27)

하지만 박병진은 옥사하기 전 아들 박건식에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땅언 끝까지 찾아야 써. 그 땅언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것이고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헐 것잉게. 작인 노릇이 아니라 그보담 더헌 고초털 당허드라도 참고 참아감서 땅언 기연시 찾아야 써.”(『아리랑』5권, 62:27~30)라는 유언을 남긴다. 박건식은 아버지 유언에 따라 농지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지만 무력을 앞세운 일제에게는 무기력하게 무너진다. 이후 박건식은 감옥에서 나온 김춘배와 3.1만세운동에 참가하여 구멍을 메우려 하지만 실패하고 목포로 야반도주한다. 목포로 간 박건식은 막노동을 하면서 아버지 유언을 실천하려하지만 구체적이거나 체계적 계획이 없어 실패하며 또 다른 남근이 없다.

또한 차서방 아버지가 평생 머슴 살면서 푼푼이 모아 구입한 논이 이전절차를 알지 못하고 전 주인의 명의로 돼있다. 지주총대²⁰⁾ 나조기는 차서방의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자신의 이문만을 생각하며 차서방을 거칠게 다룬다. 이에 격분한 차서방은 우발적 행동²¹⁾으로 나조기를 다치게 한다. 차서방은 일제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당산나무에 묶여 죽게 된다. 자기 이문만을 생각한 나조기는 부도덕한 존재이지만 문서에 대한 인식부재가 차서방의 죽음을 부르게 한다.

한기팔 등 소자작농은 고향을 떠나 간척사업에서 노동력을 갈취 당한다. 그리고 박동화는 할아버지의 유언인 땅 찾기를 공산주의 혁명이 오면 이를 것이란 기대를 갖지만 계속되는 상부의 변절자들 때문에 좌절한다. 또한 남만석은 가족들과 함께 만주

20) 지주총대란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선봉대를 말한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토지신고서 배포, 작성, 수집의 일이었다. 대부분 자기 농토를 지닌 지주였으며 한문자를 깨치고 있었고 말직의 관생활을 통해 현지 사정을 꿰뚫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나기조이다. (『아리랑』 4권, p.48.)

21) 차서방은 나기조의 손을 떼내려고 했다. 그러나 손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차서방은 몸을 뒤로 확 제치며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그래도 나기조는 떡살을 놓지 않고 따라 내려오며 또 차서방의 얼굴을 내갈겼다. 「니미 씨필, 나가느그 집 개새끼여 머시여!」 화가 폭발하는 기운 그대로 차서방은 나기조의 가슴팍을 떠다밀었다. (『아리랑』 4권, p.76:17~21.)

로 이주하지만 그곳은 중국인의 수탈이 존재한다. 차득보, 박용화, 배필룡 등은 남양군도, 일본 열도 등지의 공항건설, 탄광 노동, 전쟁터 등지에 강제 징용되지만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다.

이처럼 소자작농은 일제가 빼앗은 농지를 순순히 돌려주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조직적, 비체계적 접근으로 농지를 찾으려 한다. 농지를 찾기 위한 구체적 방법 모색 없이 당위성만으로 접근함으로써 구멍 메우기는 좌절되며 또 다른 남근은 추구하지 못한다.

작가는 소자작농의 적극적, 구체적 방법 모색이 없는 소극적 구멍 메우기는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존재로 남아 시련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있다.

VI. 수탈당한 여성의 소극성과 적극성

남성중심사회에서 정조를 남근으로 여기는 여성에게 ‘남성 부재’는 구멍이다. 여성은 현실에 순응하는 소극적 여성과 현실에 저항하는 적극적 여성으로 나뉜다. 전자는 보름, 순임, 삼월 등이 해당하고 수국, 옥비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남성중심사회의 보름이는 아버지와 오빠가 없는 남성부재의 상태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무주로 시집을 가지만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으로 남성 부재로 인한 시련은 지속된다. 군산으로 간 보름은 남성중심사회의 유력자인 서무룡, 장철문, 세끼야 등에 순응하며 아들 삼봉을 통해 남성부재의 구멍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아들은 독립운동 참여로 죽고, 서무룡, 장철문, 세끼야, 사위 배필룡 등이 사라진 뒤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남성 부재의 구멍을 메우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지속한다. 따라서 소자작농처럼 또 다른 남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순임, 복실, 삼월이 등도 남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직장을 구하지만 남성중심 사회인 정신대로 끌려간다. 이들은 남양군도, 버마, 일본 열도 등지의 전장에서 하루에도 수

십 명의 일본군에 유린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다. 그곳에서 탈출은 죽음이기 때문에 벗어날 의지조차 없이 남성 부재를 이어간다. 따라서 정신대에 끌려간 여인들은 남성 부재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남근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수국은 아버지와 오빠인 남성부재로 시련을 겪지만 동생 방대근으로 인해 남성부재를 극복한다. 방대근이 다쳐 집안을 돌볼 수 없음은 남성부재이다. 수국과 감골택은 이런 남성부재로 인해 미선소에 나가 겁탈을 당하는 등 시련을 당한다. 미선소는 남성중심사회의 상징이다. 그러나 동생 방대근의 상처가 치료되고 백남일에게 복수함으로 극복한다. 하지만 만주로 이동한 이들은 방대근이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여 집에 없을 때 경신참변으로 감골택은 죽고 수국은 경찰인 양치성의 계략에 유린을 당하는 등 남성 부재의 시련이 온다. 그러나 수국은 양치성을 칼로 찌르고 탈출하여 대근이를 만남으로 남성부재를 극복한다. 구멍을 메운 수국은 또 다른 남근인 '독립'을 추구하며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는 진취적 여인으로 변모한다.

마찬가지로 옥비도 부모와 사별, 오빠와 생이별 때문에 남성부재의 시련을 당한다. 하지만 소리하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명창이 되어서 돌아와 오빠와 만나 남성부재를 극복하는 듯하지만 남성중심사회의 유력자인 경찰서장에 의해 정조를 잃는다. 그러나 공허와 송가원의 도움으로 남성 부재를 극복한다. 그녀는 송가원을 따라 만주에서 독립군 간호사로 활약하며 또 다른 남근인 독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여성이다.

이처럼 구멍인 남성부재를 극복하지 못한 소극적 여성은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현실을 살며 또 다른 남근을 추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남성 부재를 극복한 적극적 여성은 또 다른 남근인 독립을 추구하는 진취적 여성으로 변모한다. 작가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부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면 비참한 삶이 지속되며, 이를 극복해서 또 다른 남근을 추구하면 진취적, 적극적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수동적, 현실 순응적 삶보다 진취적, 적극적 삶이 더

바람직함을 제시하고 있다.

VII. 하와이 이민의 수난과 극복

조선 민중에게 동학농민운동 실패, 일제의 농지 수탈, 조선 관리의 부정부패, 흉년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이 구멍이다. 따라서 초기 미국 하와이 이민자 방영근, 남용석, 주만상 등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한밑천 잡기 위해, 수민원 또는 영동 교회 교인의 설교와 회유에 의해 하와이 이민자로 떠난다. 이들은 '경제'를 남근으로 추구하고 미국 하와이 이민²²⁾을 통해 구멍 메우기를 실천하려 한다.

백인은 하와이에 도착한 지친 이민자들에게 갖은 욕설을 함께 주사를 맞힌 후 이들을 트럭에 가득 싣고 농장으로 간다. 농장에서는 '루나'라 불리는 감독은 채찍질하고, 멸시하며, 심한 욕설 등 하와이 이민자들을 짐승처럼 대한다. 또한 이민자들은 하루 종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며 잠시 쉴 틈도 없다.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30분간의 점심시간 외에 할당량을 채울 때까지 고된 일을 한다.

백인의 멸시, 루나의 폭력, 낮은 임금, 고된 노동, 자신도 모르게 농장에 진 빚(100달러) 등이 미국 하와이 이민자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조선을 떠나오기 전 인간의 천국(『아리랑』1권, p.141)으로 여겼던 그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인간 생지옥이다. 이를 계기로 절망과 분노로 죽는 사람도 생긴다. 이처럼 초기 미국 하와이 이민자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는다.

농장의 고용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루나나 농장주가 조선

22) 하와이 이민은 노동력 충당을 위해 하와이 사탕수수농장협회에서 주한 미국공사 알렌을 통해 교섭하게 한 것이었다. 고용은 1902년 11월에 수민원(緘民院)을 설치하게 하고, 12월 22일 인천항에서 121명을 떠나 보냈다. 그러나 <백성을 편안케 한> 수민원은 처음부터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 이민자 121명 중 반 이상이 미국 선교사 존스의 <대한사람이 인간의 천국인 미국에 이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에 회유된 영동 교회 교인이었던 것이다. (『아리랑』 1권. p.141:22~28.)

노동자의 근면, 성실, 순종 등을 인정하면서 하와이 이민자는 구멍을 메운다. 좀더 많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려하지만 이민자는 미국법이 바뀌져 하와이에 남게 된다. 이들은 한일합방 소식, 장인환, 전명운이 일제의 조선 외교고문직을 차지한 스티븐을 총으로 쏘아죽인 사건 소식 등을 접한다.

이민자들은 의로운 일을 한 장인환, 전명운을 구하기 위한 재판 비용 마련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고 변호를 위한 통역자로 이승만을 선임한다. 하지만 이승만²³⁾은 비싼 호텔비만 축내고 논문을 써야 한다는 개인사정과 살인관계의 통역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다는 종교적 이유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며 이들을 배신한다.

이민자들은 ‘독립’이란 또 다른 남근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금과 군인 부족의 구멍 발생은 이민자들의 기부로 마련한 목총을 메고, 군사훈련을 받는 등 구멍을 메우기를 한다. 구상배의 아들 토마스를 비롯한 6명의 2세가 광복군에 자원입대하여 출정하는 등 이민 2세대로 이어진다.

미국 하와이 이민자들은 조선에서 경제적 어려움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가지만 그곳은 더욱 고통과 절망의 연속으로 구멍이 넓어진다. 농장주나 루나에게 조선인 특유의 성실, 근면, 순종이 인정되면서 구멍을 메워나가지만 조선 독립을 실천하는 애국지사의 행위를 보고 감동받아 또 다른 남근인 ‘독립’을 추구한다. 이들은 독립을 위해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이민 2세대로 이어져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23) 『아리랑』에는 이승만의 의롭지 못한 행위가 많이 제시된다. 예를 들면 장인환, 전명운의 변호를 위한 통역자 거부(『아리랑』2권, pp.112~113.),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려는 재미동포 간의 토론에서 출국거부 이유에 대해 미국편을 드는 발언과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 위임 통치 청원서를 냈다는 사실(『아리랑』 6권, pp.123~126.), 이승만이 근무대만으로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받아 쫓겨난 사건(『아리랑』 8권, p.114.), 재미동포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아리랑』 8권, pp.124~132.) 등이다. 이는 이승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은 한 집권자에 대한 비난을 위한 의도라기보다 당시 민족 구성원들의 안목과 선택이 잘못됐음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미국 하와이 이민자들은 이민 생활에 정착하며 구명 메우기에 성공하지만 또 다른 남근인 '독립'을 열망하며 적극 지원한다. 따라서 『아리랑』은 미국 하와이 이민자 1세대가 고난 극복과 또 다른 남근인 '독립' 추구하며 이것이 이민 2세대로 이어져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VIII. 친일파가 추구한 '권력'의 의미

사농공상의 신분질서가 확고한 사회에서 중인, 상인은 자신들을 천하게 여기는 신분사회를 구명으로 여긴다. 한일합방이후 신분질서 동요로 일제를 이용해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인물들이 친일파가 된다. 이러 시대적 배경에서 친일파는 '권력'을 남근으로 하며 새로운 신분사회의 주체인 일제와 거리감을 좁혀 구명을 메우려 한다.

백종두는 아들 백남일에게 일본어를 배우도록 종용하고 쓰지 무라의 권유로 아전을 버리고 일진회 회장에 취임하며 일본에 백골난망의 은혜를 입었음을 강조하는 등 일본인과 거리감을 좁히려 한다. 이를 계기로 김제군 죽산면 면장으로 임명되어 직책을 충직하게 수행한다.

그러나 일인 하시모토는 심복 다나카를 통해 백종두의 일본에 대한 무례함에 대해 보고를 받고 쓰지 무라에게 연락하여 백종두를 면장직에서 박탈시킨다. 백종두는 일본인과 거리감이 멀어지는 듯하지만 강력한 권력 욕망으로 백종두는 호남친화회장에 취임하여 더욱 열성적인 앞잡이가 된다.

또한 백종두는 헌병 보조원이 된 아들 백남일을 훌륭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백남일은 하시모토가 탐내는 수국을 겁탈한 뒤 대근의 보복으로 눈을 다치고 헌병 보조원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당한다. 이후 백남일은 사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폐인에 이른다.

장덕풍은 보부상으로 사회에서 천시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와 권력을 지향한다. 그래서 그는 아들 장철문에

게 일본어를 공부시키며 경찰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체국장 하야가와 앞잡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보광회 회장을 역임한다. 또한 손자에게 판사의 꿈을 갖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입문시킨다. 하지만 중풍에 걸려 장철문에게 괘시를 당한다.

경찰이 된 장철문은 아버지의 사업을 봐주거나 자신의 오지전보를 막기 위해 보름을 세끼야에게 상납하는 등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갖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 그 뒤 그는 일인 하시모토와 함께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활동하고 경찰, 은행 등과 연계를 유지하며 권력과 부를 지속시킨다.

이동만은 동척의 요시다의 앞잡이로 부를 축적하며 권세를 누린다. 그는 부와 권세를 지속하기 위해 이경옥에게는 판사가 되길 바라고 이경재를 측량 기사로 활약시킨다. 하지만 부와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이경옥의 판사가 되고자 했던 꿈은 좌절되고, 형제간 다툼이 일어나며 마침내 이동만이 죽음으로써 이 가문은 멸망에 이른다.

우체국 소사인 양치성은 우체국장 하야가와 신임으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다. 양치성은 천황폐하의 자식으로 환골탈태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조선은 일본을 절대 당할 수 없고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며 일본인이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철저히 일본인 흉내를 낸다. 정보원과 형사로 친일에 앞장서지만 자신의 의도대로 승진하지 못함으로써 조선인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와 같이 친일파들은 일제와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 고등계 형사, 일진회 군산지부회장, 일진회원, 헌병 보조원, 순사, 면장, 정보원, 동척 하수인, 호남친화회장 등을 통해 왕성하게 친일 활동을 한다. 일제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새로운 신분질서 사회의 주체가 되기 위한 구명 메우기를 실천한다. 그러나 이들은 조선인으로서의 한계를 끝내 넘어서지 못한다. 오로지 일인들에게 충성할 때만이 그들이 던져주는 지위나 이익을 일부 챙길 수 있을 뿐이다.

일제는 식민화라는 거시적 영역에서 친일파의 미시적 권력을

허용한다. 하지만 친일파가 일본인에 도전하거나 지나친 권력 남용은 ‘면직, 미승진, 죽음 등’의 시련이 온다. 따라서 친일파는 일제의 식민화 정책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누리는 또 다른 남근이 설정된다. 즉 일제가 주는 적당한 부와 권력을 유지하며 조선 민중만을 지배하는 무늬만 일본인인 조선인이다.

결국 신분 질서가 확고한 사회에서 중인, 보부상 등의 친일파는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신분사회가 구멍이다. 친일파는 구멍을 극복하기 위해 권력을 남근으로 구멍 메우기를 한다. 일제를 이용해 신분상승을 꾀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화를 위한 거시적 영역 안에서만 구멍 메우기가 성공한다. 작가는 친일파가 일제에게 이용당한 조선인으로, 일본의 식민화 정책 영역 안에서만 미시적 권력을 유지하는 반민족인 어리석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IX. 결론

『아리랑』의 크로노토프는 동학농민운동부터 8.15 광복까지, 군산, 김제를 출발하여 목포, 만주, 연해주, 하와이, 일본열도, 동남아시아 등지로 확대된다. 이런 크로노토프는 민중의 수탈과 억압 그리고 저항과 협력 등이 나선형으로 결합하며 공시성과 통시성을 나타낸다.

본고는 작가의식을 심리주의 관점에 있는 자크 라캉의 ‘욕망의 구조’를 통해 분석했다. 대상은 타자를 통해 구멍이 생겨 남근을 추구하며 구멍 메우기를 실천한다. 하지만 메워진 구멍은 또 다른 구멍을 발생하고 또 다른 형태의 남근을 추구하며 미끄러진다. 『아리랑』은 독립운동가, 소자작농, 수탈당한 여성, 하와이 이주민, 친일파로 대변하여 작가의식을 제시했다.

독립운동가가 전개하는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은 많은 구멍을 생산하고 또 다른 남근을 추구한다. 하지만 외세에 의한 독립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가 통합되지 않고 남북분단까지 이어지게 된다. 식민지의 소자작농은 빼앗긴 농토를 되

찾는 과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만주, 연해주 등지로 쫓겨가고 고향을 잃고 떠도는 시련의 삶을 지속한다. 수탈당한 여성 중 남성부재의 현실 극복은 소극적 대응보다 적극적 대응임을 수국, 필녀 등의 여성을 통해 제시한다. 하와이 이민자는 애국지사 선구적 활동을 본받아 민족의식이 고취되었음을 나타낸다. 친일과는 독립국가의 거시적 권력 추구보다 식민화 정책 안의 미시적 권력 추구하는 어리석은 행위자임을 그들의 행적을 통해 제시한다.

조정래의 작가의식은 『아리랑』과 『태백산맥』을 거쳐 『한강』까지 이어지는 한국근현대사의 서사담론을 형상화하여 나타낸다. 『아리랑』은 동학농민운동부터 해방까지를, 『태백산맥』은 여순사건부터 육이오 전쟁까지를, 『한강』은 4·19부터 5·18까지를 각각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돼 있어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분단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아직 검증 안 된 사건을 대부분의 서사담론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 분석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시적 사건과 거시적 사건이 접합되는 위치에서 인간의 진솔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서 작품 속에 녹아있는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작가 조정래의 작품 연구가 이데올로기적 이항대립이 주였다면 이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근현대사에 있어 민중의 삶이 이데올로기에 따른 억압된 삶이었다면 이제 다양성이 인정되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과제는 『아리랑』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기초로 『태백산맥』, 『한강』까지 확대하여 탈식민주의적 관점으로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작가의식을 고찰하는 것이다.

- 권영민, 「역사적 상상력의 집중구조와 확산구조」, 『아리랑 연구』, 해냄, 2003, pp.326~327.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 김창식, 「민족사의 복원과 민족혼의 부활을 위하여 - 조정래 『아리랑』」, 『아리랑 연구』, 해냄, 2003, p.283.
-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 _____,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 _____, 『소설과 서사문화』, 소명출판, 2006, p.61.
- 맥락과 비평 현대문학연구회 편저, 『라깅과 문학』, 예림 기획, 1998.
- 미하일 바흐친(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2005.
- s-리몬-케넌(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 지성사, 1985.
- 박혜숙, 「국권 회복에 밀그림이 된 소설 『아리랑』의 여성들」, 『아리랑연구』, 2003, pp.194~206.
- 시모어체트먼(김경숙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 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994.
- 임현영, 「『아리랑』의 민족운동사적 접근」, 『아리랑 연구』, 해냄, 2003.
- 장수익, 「『아리랑』의 서사 전개 방식」, 『아리랑 연구』, 해냄, 2003, pp.279~280.
- 전영택, 「아리랑 노래로 읽어보는 『아리랑』」, 『아리랑 연구』, 해냄, 2003. pp.215~252.
- 정호용, 「『아리랑』의 주제」, 『아리랑 연구』, 해냄, 2003, p.184.
- 정종진, 「조정래의 『아리랑』, 『태백산맥』에 나타난 사서인 연구」, 비평문학제20호, 2005, pp. 263~284.
- 정종진, 「조정래 3大 소설 속의 성 표현 양상」, 문학마당, 2005.
- 제라르즈네뜨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조남현, 「소설을 통한 역사와 민족의 새 독법」, 『아리랑 연구』,

- 해냄, 2003, p.29.
- 조정래, 『아리랑』 1권 - 8권, 해냄, 1994.
- 조정래, 『아리랑』 9권 - 12권, 해냄, 1995.
- 테리이글턴(김명환 외 옮김),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1999.
- 프란츠 슈탄첼(안영환 역), 『소설 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1996.
- 하정일,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 소명출판, 2000.
- 황광수, 「역사적 상상력과 변증법적 소설 미학」, 『아리랑 연구』, 해냄, 2003, p.52.

K C I

The Consciousness of The Writer Presented in 『Arilang』

『Arilang』's background times range from Dong Hak peasantry's revolution to 8.15 independence. Its spatial background spreads out from Kimje and Kunsan to Manchuria, Mokpo,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Hawaii, the Japanese islands, and South-East Asia.

This paper analyzes 『Arilang』 by means of 'The Structure of desire' written by Jacques Lacan. The Hole built by the other pursues phallus and practices filling up the hole for itself. But the hole filled up makes another hole and the hole slides down pursuing another type of phallus. The consciousness of the writer is found through the repeating of this process.

『Arilang』 has holes built by making patriot martyrs for national independence, peasant proprietors, women plundered, Hawaii settlers and the pro-Japanese group become others. These holes pursue phallus respectively. These holes, in turn, overcome loss by practicing filling up. But the holes filled up generate other holes, and the holes pursue other phallu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consequence by 'the Structure of desire', the consciousness of the writer is as follows which is presented by major characters of Arilang.

First, independence movement generates from the views of nationalism but gradually, it is processed by 'patriots for national independence' with a variety of Ideologies. But independence is accomplished by foreign influence with the variety of Ideologies separated. After all, national

conflicts deepen further, and lead to the tragic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Second, passive resistance of peasant proprietors causes them to last their wandering lives without overcoming the circumstance of the colonial era.

Third, the plundered women are divided into passive women and positive women in the consciousness of the writer. The passive women fail to get over the sufferings. But the positive women get over the sufferings pursuing another desire. Consequently, the writer suggests that the positive life is more desirable than the passive life for the women.

Fourth, Hawaii settlers emigrates to get over poverty. They overcome their hardships there, and they turn to being pursuing independence by the influence of the patriots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 writer hereby suggests that the settlers' will for getting over hardships leads to the national consciousness.

Fifth, the pro-Japanese group collaborates with Japanese imperialism because of a sense of inferiority from their low social status and pursues the wealth and the power. But the writer suggest that they are only foolish being put to use by Japanese imperialism.

Hereafter, on the basis of the consciousness of the writer presented in 『Arilang』, by extension, in 『Taebaeksanmek』 and 『Hangang』, contemplating narrative aesthetics of Korean modern-contemporary history will be the problem to be solved.

Key Words :

Arilang, Jacques Lacan, phallus, hole, another type of phallus, chronotope, The Other, Japanese imperialism,

patriot martyrs for national independence, peasant proprietors, women plundered, Hawaii settlers, the pro-Japanese group, Korea and Japan unification of two countries

K C I